

연금시장리뷰 33호

은퇴는 또 다른 시작

-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은퇴자협회 : 주명룡 회장(02-456-0308, mj@karpkr.org) :

□ 은퇴는 또 다른 시작

2000년 7월 국제사회가 규정한 노령화 사회(ageing society)에 들어선 우리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65세 이상 노년층 증가와 올해부터 시작된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은 지속되는 저출산으로 인구의 노령화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시니어붐, 저출산붐 베이비붐의 boom, boom 시대를 맞고 있다.

우리는 누구도 노령사회를 직접 겪어보지 못했다. 이제까지 사회통념으로 여겨왔던 퇴직과 함께 오는 은퇴는 인생의 끝인 줄 알았다.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거치면서 노년기에 접어들자마자 생을 끝내는 직선상의 생을 살았다. 그러나 평균수명의 연장은 퇴직 후 또 다른 긴 생애를 살아야 하는 bonus-time 을 안겨줬다. 이 extra time 은 우리 생의 과정을 순환(cyclic)하는 끝과 시작이 반복되는 새로운 삶의 세계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른바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출발점인 것이다.

늘어난 수명만큼 남은 인생을 제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이 따라 주어야 한다. 퇴직 후에 밀려오는 시간, 그리고 이제는 없어진 사회적 공간, 건강 문제 등은 만만치 않은 노후 재정 문제와 더불어 또 일을 해야만 하는 사회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시작 된지 23년이 되어 가고 있지만 완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니어 세대는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1차 연금개혁을 거친 국민연금은 은퇴 전 수입의 60% 지급률이 40%로 낮아지는 그대로 내뒀던 달 받는 쪽으로 개정됐다.

국민연금에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다층화 된 설계와 저축, 재테크 등이 따라주어야 하고, 보충적으로 경우에 따라 역모기지, 농지연금 등으로 노후의 재정적 준비에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집 한 칸도 없는 어려운 처지라면 일자리를 찾아나서야 할 것이며, 건강이 허락치 않는다면 기초생활수급, 기초노령연금 등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

퇴직 후 성공적인 여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생 road-map 이 필요하며 여생계획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생의 선택을 해서 살아가고 싶은지 명확한 그림을 그려 내야 한다.

내 개인시간으로 갖게 될 평균 12만 여 시간의 활용에 대해 적절한 설계가 필요하고 일과 사회참여가 함께 가는 활동적인 생활 속에서 잠깐식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노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은퇴란 없으며 우리의 생은 "끝나야 끝난 거다." 라는 대한은퇴자협회의 Hero Song 처럼 우리는 남은 인생을 철저히 자신과 가족, 사회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I. 사회환경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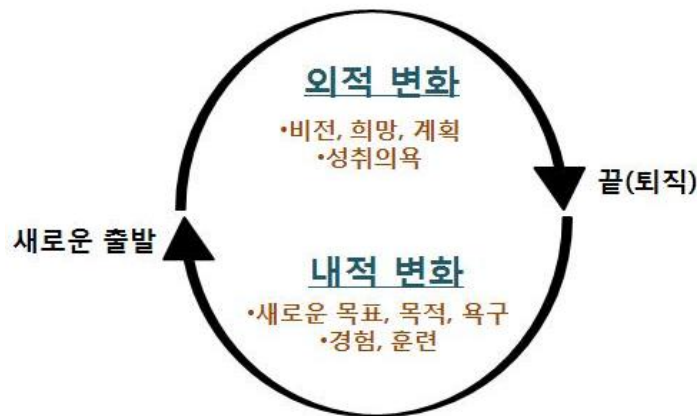
○ 길어진 수명

- 우리의 수명은 지난 100 여 년 동안 매주 이틀 꼴로 늘어남
 - 일주 7 일이 아니라 일주 9 일을 살아온 셈이며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지난 30 년 동안에 15 년 가량 늘어나 이제는 선진국보다 앞서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2150 년에 인간수명이 130 세와 150 세가 될 것이라는 미국의 두 생물학 교수의(Olshansky & Austad) 내기 게임은 우리의 평균수명이 얼마나 더 늘어 날 것인가를 예측하게 하고 있음
- 이렇게 길어진 수명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 개개인의 생활변화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사회주변 환경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고 점차 우리사회는 노령화(ageing)체제로 서서히 변하고 있음

○ 순환하는 삶(Cyclic life)

- 미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를 조명한 시사주간지 Times 는 사람들은 늙을 새도 없이 죽어갔다고 말함(people did not age, they died)
 - 평균수명이 50~60 세를 맴돌던 우리의 선배세대들은 태어나 주어진 일에 매달리며 살다 퇴직(은퇴)를 맞으면서 바로 생을 마감하곤 했었음
- 그 시절의 우리생의 과정은 단순한 3 단계였음
 - 태어나서 교육과 성장을 통한 청소년기, 취업과 함께 자기완성을 위한 치열한 생존 경쟁기를 2 단계로, 그리고 퇴직과 함께 온 노년기를 거치면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직선적인 생활상이었음
- 그런 우리의 생활양식은 늘어난 평균수명과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층 인구의 증가로 은퇴와 새로운 출발을 반복 하는 순환적인 삶의 형태로 변하고 있음
 - 즉 퇴직이 왔는가 하면 곧장 다시 새로운 형태의 변화된 새 출발을 하는 순환하는(cyclic)생의 주기로 나아가고 있음
- 그래서 퇴직과 함께 온 "은퇴는 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다른 여정을 찾아 출발하는 새로운 시작이자 출발인 것이다."라고 말할수 있음

< 그림 1. 생의 시기별 순환 과정 >



자료: <수명의 연장으로 새로운 출발과 끝(퇴직)이 생의 시기별로 순환하는 과정>

즉, 이러한 순환과정에서 출발 시 지녔던 비전, 희망, 계획 등 성취의욕이 살아가는 과정에 감소되면서 그 삶의 과정을 끝내고 또다시 내적 변화(새로운 목표와 목적, 욕구 등)를 가지고 순환하는 삶. (대한은퇴자협회)

○ 퇴직이란?

- 우린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어떤 형태든 직업을 가져야 함
 - 현대사회에서 일자리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받침대이자 신분의 상징이기도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명함이기도 함
- 그럼 일자리에서 제도(틀)에 의해 나이가 차면 물러나게 되고, 그것이 은퇴(retirement)임
- 필자는 방송과 강연을 통해 매년 많은 퇴직 예정자들과 만남을 갖음
 - 현장교육에서는 퇴직을 앞둔 50 대 중반, 이 시대의 베이비부머들을 만나 강연과 토론의 시간을 갖음
 - 짧게는 3 일 길게는 1~2 주에 이르는 퇴직 준비교육을 일부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을 위해 실시하며 이런 과정을 거치는 퇴직 예정자들은 행복하다고 볼수 있음
 -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퇴직자들은 그런 준비가 없이 거친 세파에 던져지기 때문임
- 퇴직시기가 다가오면 누구나 마음의 동요를 갖게 됨
- 그리고 “퇴직”이란 벼랑에서 멈칫거리다 뛰어 내려야 함
 - 잠깐 동안의 자유를 만끽하겠지만 세상이라는 사회의 찬 바닥에 내동댕이쳐지면서 치유의 회복(recuperation)기간에 들어감

- 사람마다 달라 얼마 후 다시 벼랑을 기어올라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 출발을 하는가 하면 오랜 세월 동안 자리를 못 잡고 배회하기도 하며 때로는 영원히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어떤 사람은 하나의 직장에서 평생을 지내고 퇴직하기도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서너 번의 퇴직을 경험하게 됨

○ 퇴직과 함께 오는 제 2의 사춘기

- 퇴직은 우리에게 이제까지 대부분 잊고 살았던 본인의 자아에 대한 본분을 찾게 해주며 또한 조직에서의 해방감과 함께 이제부터 내 인생을 조정해 나간다는 권리(자율권)를 부여해 줌
- 자율권과 함께 찾아온 “황금의 시절”이라 표현되는 이 제 2의 사춘기에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건강을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음

II. 어떻게 살 것인가?

○ 시간, 공간, 건강 그리고 일

- 퇴직은 곧 많은 시간을 부여해 줌
 - 여가가 아닌 이 많은 bonus 시간에 대해 하루하루를 어떻게 유용하게 보낼 것인가에 준비가 있어야 함
 - 또한 퇴직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직장내의 공간이 사라지고 집안에서의 위치도 새삼 재확인 해야 하는 시기임
 - 성장한 자녀나 이제까지 집안을 관장하고 있던 아내의 위치가 새삼 커다랗게 부각되며 가장으로서 차지할 공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시기이기도 함
- 아프면 안되겠다는 불안과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함
 - 선진국 은퇴협은 회원교육에서 음식조절(diet)과 규칙적인 운동을 권하고 있음
- 퇴직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노년기의 공통적 고민의 하나인 경제적 문제에 대한 고통을 수반하기도 함
 - 은퇴후의 “일”은 경제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참여로 노년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생활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함
- 필자가 대표로 있는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50, 60 대가 전체 회원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음
 - 이들 회원들의 제일 큰 요구는 “일자리”임

- 그러나 퇴직 후 50, 60 대가 괜찮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은 대단히 낮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장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은 9 배나 적다고 발표하고 있음

○ 돈, 그리고 돈, 돈

- 서점에 가면 은퇴관련 서적 중 제일 많은 부분이 은퇴후의 재정에 관한 책들임
 - 비슷한 내용의 책들은 어떻게 노년기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돈을 준비해 가야 하는가를 늘어놓고 있음
- 그리고 내용들은 위협적일 정도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노년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해주고 있음
 - 바야흐로 1 차 베이비부머들의 퇴직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는 소위 시니어산업의 제일 큰 부분인 은퇴시장에 대해 기업들의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음
- 1988 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 년이 넘는 우리사회의 퇴직자들은 이제 100 만원대의 연금을 받게 됨
 - 그렇지만 제대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60 대 중반이상의 퇴직자들은 수십만 원대에 그쳐 기타 수입이 없는 한 노년기 생활이 결코 순탄치 않음
- 310 만 명이 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급액 평균치가 24 만여원 이라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노년층이 어떻게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음
- 초 노령사회를 불과 15 년 앞두고 있는 우리사회는 50 여 년 후 국민연금 붕괴라는 사실을 앞두고 1 차 연금개혁을 거쳤으나 그 결과 미래 수령할 연금이 용돈수준으로 줄어드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
- 이런 현실에 대비코자 다행스럽게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됐고, 금융시장이 설계한 개인연금 시장이 뒤를 받쳐 주고 있음
 -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65 세 이상의 노년층을 위해 종신형 역모기지(주택담보 연금제도)가 도입됐고 2008 년 1 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 2011 년부터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되어 텃밭이라도 가지고 있는 시골 노년층도 토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탈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음
- 노년기 생활의 뒷받침이 되어줄 우리사회 연금구조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 층으로 신진국의 모습과 같게 되었음
 - 여기에 개인 저축과 재테크수단이 뒷받침되어 정기적 수입이 뒷받침 된다면 금상첨화라 하겠음

< 그림 2. 미국은퇴자협회(AARP) 연금가이드 >

To achieve 70% income goal:

- Social Security replaces : 40% (avg)
- Pensions and/or Savings : 30%

Savings target could require work past normal retirement age.

AARP

자료: 은퇴 전 수입의 70%를 노년기 수입목표로 잡고 40%를 국민연금으로, 30%를 기타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역모기지, 저축)에서 얻어야 한다는 미국은퇴자협회(AARP) 연금가이드. 이 70% 목표 설정에서 퇴직 후에도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AARP는 말하고 있다. 국민연금 1차 개혁은 보험료는 종전과 같으나 60%인 지급률은 2028년까지 40%로 낮춰져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 미리 준비하라

- 단기간 여행을 떠나더라도 우린 많은 준비를 함
 - 그런데 퇴직 후 떠나는 여행은 길고 긴 30~40년의 새로운 긴 여정임
- 그 긴 여정을 떠나려면 상당히 긴 세월의 준비가 필요함
 - 은퇴, 퇴직,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머릿속에서 그려 나가는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함
- 재정, 시간, 건강 부분에 많은 부분을 부여하면서 미리부터 은퇴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나가야 함

○ 여생계획서 만들기

- 종이나 펜을 들고 조용한 공간에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 갈 것인가에 대해 써 보기 바람
- 미리 생각해 두지 않았다면 인생계획서는 단번에 나오기 어려움
 - 마치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쓰는 것과 똑같다. 목적, 사업내용, 일정계획, 예산계획 등이 들어가듯 전체 인생 여정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해 보는 것임

- 여생계획서는 한번에 완성되기 어려움
 - 시간과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어 한달, 두 달, 반년 후에 보게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살겠다고 계획 했는지 방향이 다를 수 있음
- 여생계획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 생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나 하는 대답을 찾아내야 함
 - 궁극적인 생의 선택이 선정되어 있다면 근사치에 가까운 여생계획서가 만들어 갖춰질 수 있음

○ 나를 알기(Who am I?)

- 여생계획서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는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 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아내야 함
- 은퇴 후 이러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없이 많은 사람들은 “가정, 가족”이라는 공간으로 파고들어 봄
 - 그러나 곧 그 속에서 당신의 역할이 별로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제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됨

△ 나는 누구인가? △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싶어 하는가?
--

- 이러한 개인적 고민과 소망, 가족 간 교류와 관계, 가족 외의 사회적 활동 공간 등의 관점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과연 앞으로 만족 할 수 있는 삶은 무엇인지를 파악 해내야 할 것임
- 필자가 퇴직 준비교육장에서 만나는 퇴직자들과의 대담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고민했고 뚜렷이 답하는 사람을 별로 만나보질 못했음
 - 그만큼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쉴 사이 없이 달려왔고 또 진지하게 자신에 대해 고민해야 할 만큼 후반기 인생에 대한 고찰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음

○ 당신이 선정하는 생의 선택

-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제된 몇 줄의 글로 나타나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려낼 수 있음

-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알게 되면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가에 대한 방향이 나옴
 - 예로 이제까지 살아온 과정이 직장과 가족에 매달려 해보고 싶어도 못했던 일 들, 이를테면 못 다한 공부를 더 한다든지 취미생활을 시작한다든지 등임
- 이렇게 정제된 당신이 선정하는(choose) 당신의 생의 선택(choice)이 결정되면 이제부터 생의 전체 모습을 한 장의 종이에 그려 볼 수 있음
- 그로 인해 후반부 인생을 계획적이고 진취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살아가게 될 것임
- 필자는 두 번의 자발적인 은퇴를 했음
 - 젊은 시절 괜찮은 직장에서 더 발전적인 나를 위해 퇴직했고, 미국이민이라는 모험을 통해 자기 발전을 이뤘으며, 또 다시 원하는 다른 삶의 선택을 택해 30 년 가까이 살아 왔던 미국 생활을 접고 귀국해 쉽지 않은 NGO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임
- 그것은 필자가 오랫동안 찾았던 내가 누구인가에서 나온 해답으로 때론 힘이 들어도 내가 선정한 생의 선택에 만족하며 후회 없는 후반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 그림 3. 새로운 긴 여정을 어떻게 살 것인가? >



자료: KARP(대한은퇴자협회)

Ⅲ. 관찮게 살아가는 3 가지 방법

○ 12 만 시간의 활용

- 한국인 평균 수명은 80 세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음
 - 그 평균수명이란 것이 누구나 다 그 나이가 되면 죽는다는 것이 아닌 평균치 숫자이기 때문에 각자의 수명은 판이하게 다를 수 있음
- 50 대 후반에 퇴직해 평균 수명을 산다 하면 우리에게겐 평균 12 만 시간의 나 혼자 여유 시간이 주어짐
 - 하루 24 시간 중 13 시간을 잠자고, 식사하고, 운동하고, 신문 TV 보고, 친구 만나는 등 이런 일로 소비해도 하루 11 시간 정도는 내 개인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시간임
(선진국 은퇴자협회는 개인 시간을 13 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음)
- 하루 11 시간 평균 수명만큼만 산다 할 때 우리에게겐 '12 만' 시간 이상의 나만의 시간이 주어짐
- "그 '12 만'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함
- 필자가 회장으로 있는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신규 가입회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일과 봉사(사회 활동) 그리고 여가가 적절히 섞어진 3 분화된 남은 인생을 살자"고 방향 제시함

○ 일

- 인간 수명 100 세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은퇴 후 30~40 년을 휴가상태로 보낸다는 것은 개인이나 사회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 심화되는 노령화 속의 우리사회는 심각한 복지부담을 갖게 되며 건강한 노년층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건강 측면에서나 경제적 측면 모두 가야 할 방향임
- Full-time 이든 Part-time 이든 일을 한다는 것은 활동적 인간으로 만들어주며 사회적 고립감에서 해방시켜주며, 노년기에 의미 있는 생활경험을 만들어 줌
- "70 이 새로운 50 대"라는 슬로건처럼 자신의 과거 경력에 집착하지 말고 일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살려주는 새로운 기회임

○ 봉사

- 자원봉사는 나이든 중장년층에게 조금은 부자연스런 다른 영역의 사회활동으로 다가오고
우리사회 구성원이 봉사에 익숙지 않고 봉사를 해도 조직이 같이 하는 그런 형태로 경험해
왔기 때문에 퇴직 후 봉사에 나선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음
-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원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음
 - 그 필요한 곳에 여러분의 경험과 역량이 맞는 곳에 여러분의 손길을 빌려 줘야 하며
이것은 지역사회에 대한 우리 모두의 책무이기도 함
- 필자는 2010년 11월 17일부로 37,012시간의 자원봉사 기록을 만들어 냈음
 - 금년 하반기 4만시간대를 넘게 될 필자의 자원봉사는 어떤 기대나 보상이 없이 세상에
남기게 되는 조그만 흔적으로 본인의 가슴에 형용키 어려운 만족감과 성취감을 주고 있음
-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중 제일 인기가 없었던 카터 대통령은 퇴임 후 집 짓기 운동 봉사로
제일 인기 있는 대통령으로 미국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음
-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재능이나 나아가서는 물질적 나눔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후반기 생은 더욱 빛 날 것임
- 봉사를 하게 되면 생활에 윤기가 돌며 생의 가치를 느끼게 되고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고
본인에게 만족감과 성취감을 갖게 해줌

○ 여가

- Leisure로 흔히 말하는 여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활의 한 부분임
 - 그렇지만 그 여가가 퇴직 후 남은 인생의 전부가 여가라 한다면 그것은 여가가 아니라
숨만 쉬고 있는 무의미한 생존일 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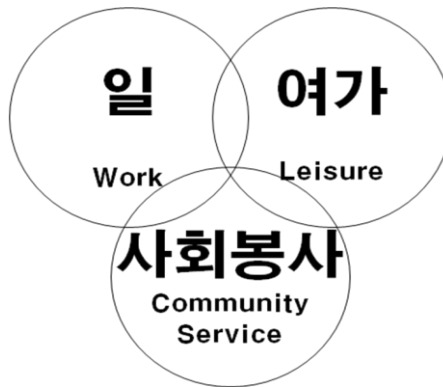
△ “한번쯤 종로 3가 종묘공원을 가보자”

- 그리고 잠시 그곳에 머물면서 하루하루를 죽이고 있는 노년층 무리를 관찰해 보자

- 여가란 할 일이 있는 생활 속에서 리듬을 맞추기 위한 잠깐씩의 “쉼”이 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함

- 노년기에 할 일이 있는 틈 속에서 여가를 계획하고 쉼을 찾는다는 것은 젊은 시절 느껴보지 못했던 또 다른 커다란 생의 즐거움
 -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월요일도 산에 오르고 화요일에도 산에 올라야 할 만큼 할 일이 없다면 잘못된 노년기 삶임
- 일과 봉사 그리고 적절한 여가가 끼는 생활이 은퇴후의 생활이라고 선진 은퇴자 단체들은 제시하고 있음

< 그림 4. 일, 봉사, 여가의 조화 >



자료 : KARP(대한은퇴자협회)

IV. 은퇴란 없다!

- 우리 사회의 베이비부머 세대로 수년 또는 10 년 20 년 후에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은퇴)는 순환하는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 해야함
- 은퇴는 끝이 아님
 - 퇴직은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가는 과정중의 한 정거장에 잠깐 들리는 것일 뿐임
 - 그 역에서 쉬면서 인생 정리를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다시 다음 역을 향해 출발하는 것임
 - 즉, 은퇴와 새로운 시작이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삶인 것임
- 대한은퇴자협회가 만든 히어로 송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의 후렴 부분은 “끝나야 끝난 거다”를 반복함. 우리 인생은 끝나야 끝난 것임
-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며, re-tire 를 re-start 로, re-generate 해야함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02-456-0308, mj@karpkr.org)